'재난현장 통합·민간' 총동원

익산시, 군병력 복구지원 참여로 위험 요소 해소… 민간도움 수용 빠른 복구 매진

익산시가 대규모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피해현장으로 이동 배치하고 민간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비상체계 운영범위를 더욱 확대하며 수해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폭우 당시부터 많은 자원봉사 신청이 쇄도했지만 위험요인이 커 전문자원봉사단체만을 투입했다"며 "현재 대규모 군병력 복구지원 참여로 전반적인 현장 위험 요소가 해소돼 시민과 전북도, 전국에서 지원하는 민간도움을 수용해 빠른 복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시는 익산시자원봉사센터와 공동으로 함열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가동하고 전문자원 지원체계로 비상 운영했다.

산북천 붕괴위험으로 긴급 대피 명령이 발령된 지 6시간 만에 봉사자 150여명을 투입해 긴급 '사랑의 밥차'

를 운영, 대피소 주민을 위한 900인분의 도시락을 배식했다.

집중호우 당시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 일반 자원봉사를 배제하고 전문자원봉사 5개 단체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급식-긴급생활지원, 대피소 의료방역과 환경정비 지원에 앞장섰다.

현재 시는 지원단을 산북천 피해 현장인 망성면 나바위성지 성당으로 옮겨 피해현황 조사, 접수, 복구지원 등을 일원화해 대응체제를 강화한다.

이곳에서 기관별로 이뤄지는 자원봉사활동을 일원화하고 현장에 맞춰 수요조사,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장비·물품 지원, 상황관리 등 자원봉사 활동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대규모 피해복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국군장병들의 중식 도시락 1000인분을 본격적으로 책임진다.

익산시와 전북도, 전주시 밥차 3대를 확보하고 이동급식차량으로 현장에서 음식을 조리한 따뜻한 점심으로 군장병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

또한 침수피해 주민들, 피해복구에 참여하는 군인, 자원봉사자들에게 자매도시 경주시에서 보내온 생수 1만5천개과 컵라면, 온수통 등을 지원하는 등 전국에서 쏟아지는 기부물품을 모집·배분한다.

특히 일상생활 복귀 지원을 위해 침수된 이불과 옷가지 세탁을 위해 이동세탁차량 5대, 세탁기 15대를 확보해 지원에 나선다.

자원봉사 희망자는 1365자원봉사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전화(☎063?837-1365)로 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시민대학 지정 시범사업 선정… 도비 확보

익산시, 평생학습관·원광대·원광보건대 캠퍼스 등 10개 강좌 지원

익산시는 전북도와 전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지원하는 '전북시민대학 지정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4,900만원을 확보했다.

'전북시민대학 지정 시범사업'은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본부 캠퍼스를 맡고 시군에 특성화된 캠퍼스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2개교와 컨소시엄을 추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10개 강좌를 시민에 제공한다.

'전북시민대학의 교육과정'은 시민교육, 지역학(전북학) 등 필수과정과 '원광대학교 캠퍼스' 디지털 리터러시 외 3개 강좌, '원광보건대학교 캠퍼스' 손끝이 아름다운 익산시민외 2개 강좌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교육과정을 통해 시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평생학습이 가능한 평생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전북형 학습공동체 기반 구축을 목표로 대학의 우수한 교수들을 통해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평생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

시 관계자는 "도비 확보를 통해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고 평생학습이 갈수록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 '무녀도 섬마을 작은축제' 28~30일 개최… 체류형 관광도모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및 주민 화합과 어촌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섬마을 작은 축제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무녀도에서 열린다.

섬마을 작은축제는 어촌마을의 특색을 살린 '먹거리-체험-관광' 아이템 발굴을 통한 주민주도형 축제다.

어촌체험 휴양마을을 기반으로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축제 컨설팅 사업을 연계해 어촌마을 주민들이 직접 축제 기획에 참여, 어촌마을만의 특색있고 지속가능한 축제를 개발하고, 축제를 활용한 마을별 특산품 판매?홍보의 장 마련을 취지로 작년 처음 선유도에서 시작했다. 섬자체의 감성에 맞는 캠핑존 조성, 선유도산 특산품 홍보 이벤트 등 체험행사를 통해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올해 무녀도 섬마을 작은축제는 무녀도캠핑장을 중심으로 한 무녀도특산물 활용 캠핑요리대회, 갯벌체험, 무녀도바지락전 막걸리파티, 바지락 무게 맞추기, 무녀도해변 플로깅(plogging:달리기하면서 쓰레기 줍는운동) 등 마을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축제에는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무녀도 바지락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깐바지락, 바지락젓갈 등을 20%이상 할인해 판매하는 한정판매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호우피해에 따른 군산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촉구

군산시의회, 기자회견 통해 수재민들·위험지구 거주민 등 실정 성토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호우피해에 따른 군산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날 시의회는 브리핑에서 지난 13일 이후 엿새 동안 이어진 호우경보 기간동안의 기록적인 호우로 유례없는 폭우피해가 발생했는데 특히 군산은 60년 만에 강우량으로 역대급 물폭탄이 쏟아져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연이어 계속되는 비로 피해가 불어나고 있으며, 산사태 및 옹벽 붕괴 우려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나마 군산시 공직자들이 대규모 하수정비 및 빗물받이 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급경사지 및 하천, 유수지 등 취약지에 대한 예찰을 철저히 하여 수백mm의 폭우에도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정말 다행스러웠지만 피해 규모가 광범위하여 수백 명의 군부대 장병을 포함하여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진척이 미비한 상황으로 수재민들과 재난 위험지구 거주민들은 생계 걱정에 하루하루 눈물이 마를 새가 없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지난 19일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13개 시군 중에 군산이 없다는 사실에 군산시민들은 또다시 실의에 빠졌고 더군다나 충남과 경북은 각각 4개 시군이 선정되었는데, 전국에서 침수 농경지가 가장 큰 전북은 익산과 김제 죽산면 2곳만 지정되어 시·군 단위로 볼 때 익산 단 1곳만 지정된 결과로 전라북도의 무능함과 방관적 행정이 역력히 입증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권 내 강수량이 가장 많은 군산·익산·김제 등 3개 시군 중 유독 군산만 제외되었다는 사실에 전라북도가 새만금 관할권 방관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에 있어서도 군산을 소외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군산시민의 피해 상황을 제대로 실사조사 할것을 촉구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사회보장특구 동산동 복지 밑그림 시작

익산시가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된 동산동의 복지 밑그림이 시작된다.

2026년까지 4년간 예산 9억 8,500만원을 투입해 동산동 일대의 지역복지자생력 구축하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청사진의 기초작업으로 지역주민 욕구와 자원을 조사한다.

사업수행기관인 동산사회복지관(관장 이현희)과 원광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복지보건학부 김흥주교수)는 동산동 지역주민 400명(어르신, 고립 가구, 아동, 청소년,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 욕구조사와 더불어 동산동 지역주민, 사회보장 관련 기관의 종사자 등 2개 그룹, 총 20명 대상으로 지역 내 복지 수요와 지역자원 및 특성 등의 면밀한 진단을 위해 심층조사(FGI)와 지역자원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호우피해 주민 지방세 유예감면 추진

익산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세재 지원에 나섰다.

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 구호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 취득세 등 면제 등 적극적으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침수주택, 상가 등은 이달 부과된 재산세를 6개월 징수유예하되,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피해접수 현황을 토대로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추진한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말소등기 및 2년 이내에 신·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건축·개수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지적장애인 실종 예방 배회감지기 보급

군산시가 배회 성향이 있는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배회감지기를 무상 보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31일까지 상습 실종 지적장애인과 실종 위험도가 높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배회감지기를 무상 보급한다.

이번 무상보급은 지적장애인 50명에게 배회감지기를 무상 보급하게 되며 앞서 시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51명에게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지적장애인에게 위치추적장치(GPS)가 탑재된 배회감지기(손목시계형)를 보급해 실시간으로 앱(스마트지킴이)을 통해 위치를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줘 실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신청자 및 경찰서 추천으로 선정한 대상자들에게 군산경찰서에서 사전등록을 실시한 후 배회감지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배숙진 경로장애인과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